



경기도 과천시 문화재 자료인 용운암 마애승상을 처음 발견해 시에 신고한 이기주씨(왼쪽)와 현재 지킴이 활동을 하는 이순자씨는 서로에게 큰힘이 되는 동료 없는 동반자이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시기 2006년 7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585 호

17

과천 마애승상 지킴이 이기주 · 이순자 씨

## 뿌리없이 즐기와 잎 있을 수 있나요?



“이 용운암 마애승상은 부처님의 얼굴을 새겨 놓은 대부분의 마애상과는 달리 활짝 웃고 있는 다섯 스님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폭 9~14cm, 길이 10~15cm 크기인 각 스님들의 머리는 삭발한 형상이며, 얼굴에는 눈썹과 코, 미소편 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5년 당시에는 무너진 옹막의 흔적이 있었습니니다. 당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보고도 한동안 그냥 지나쳤는데 85년에 동국대에서 찾아와 조사하고 탁본을 하더니 조각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뒤편에 있는 폐사된 백운사(구 용운암) 옆 마애승상(과천 향토유적 제 4호) 지킴이 이순자씨(50)와 75년 마애승상을 처음 발견한 이기주씨(81)가 과천 문화재 지킴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답사에는 특별히 과천문화재지킴이 전성제 회장(67), 김광미 총무(48), 조영미(66), 조상철(65)씨, 과천자원봉사센터 직원 정현수씨가 참여했다.  
 과천문화재지킴이 회원들이 오전 10시 아침회의를 마친뒤 서둘러 길을 나선것은 이순자씨가 그

동안 과천시에 끊임없이 요청해 최근 3개나 설치된 마애승상 가는길 표지판을 보기위해서다. 또 이순자씨가 그토록 공을 들이는 향토문화재를 보고싶다는 의견도 분분했기 때문이다.  
 “어머 여기에 금강문 소림굴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가느다란 눈, 옅푸른 코, 반쯤 벌려 웃고 있는 입이 모두 비슷하네요”  
 “잠 신기하네요. 얼굴을 보니 동자승처럼 보여요”  
 “과천에 이런 특이한 마애상이 있다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과천 문화재지킴이 회원들은 이순자씨와 이기주씨의 안내를 차례로 듣고난 뒤 마애상을 세밀하게 뜯어보며 한마디씩 거든다.  
 마애승상이 86년 과천시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이기주씨(국가유공자회 과천시회 회장), 이기주씨는 최근 과천 문원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길도 없이 수풀로 가려진 마애승상 가는 길이 말끔히 정리된 것을 보니 이순자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너진 돌무더기에 가려진 마애승상 부근도 아주 말끔하게 정비했네요”  
 이기주씨는 마애승상 발견당시 용운사에 다니며 새벽기도를 하고 서예를 배웠다. 어느날 우연히 산속 바위틈에서 마애승상을 발견해 85년 과천시에 문화재 등록을 요청했다. 이후 마애승상은

동국대 사학과 조사단의 답사후 86년 과천시 문화재 자료로 등록됐다.  
 이기주씨는 “스님상이 특이해 우연찮게 얘기하고 보니 동국대에서 와서 조사하고 탁본까지 한 것을 보았다”며 “그 인연이 지금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주씨의 바톤을 이어받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마애승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자씨, 이순자씨의 열성적인 활동은 지난해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언젠가 절에 갔는데 대웅전 대적광전 보광전 관음전 비로자나전 등 전각의 이름이 모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궁금해 문화재 공부부터 시작했지요”  
 이순자씨는 이후 사찰문화학교에 입학해 불교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다. 이후 과천시 역사유적의 심장부가 관악산에 있는 신라고갈 연주암과 연주

대임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연주대를 설명하고 싶지만 관악산 꼭대기에 있으니 답사객을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순자씨는 마애승상에서 직선거리로 전방 400~500m에 위치한 보광사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사찰의 구조와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순자씨는 학생들에게 항상 ‘뿌리’를 강조한다. 바로 ‘나뭇가지’ 이론이다.  
 “여러분은 나무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부모님은 그 꽃과 연결된 나뭇가지이고, 조부모님은 부모님과 연결된 줄기이지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결국 꽃을 피우기가 힘들지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조상들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 때입니다.”  
 보통 문화재 해설에서 벗어나면 싫어할 것 같아

주저하지만 이순자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학생들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좋아한다. ‘또 절이냐’고 말하는 학생들도 이순자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절의 소중함을 새삼 인식한다.  
 “이순자 선생의 공로가 참 대단해요. 무슨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기주씨)  
 “아니예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선생님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교육을 하는데 한번도 빠지지않아요. 그리고 우리문화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느껴질 정도예요.” (이순자씨)  
 서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기주씨와 이순자씨는 과천 문화재지킴이 봉사회원들과 함께 문화재 홍보프로그램 만들기, 답사활동 전개,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해설사로 눈 코 뜰 새 없는 분주한 나날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또 다른지역 문화답사 자료나 문화재청 교육내용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이기주씨와 이순자씨는 “폐사지의 기왕장 조각 하나도 버릴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이자 역사의 흔적”이라며 “지역문화를 일리고 지키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천/글=김원우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마애승상 지킴이 봉사활동 선후배 관계 이기주씨가 발견, 문화재 등록 일등공신 2004년부터 이순자씨가 맡아 주변 관리 지역문화 알리기에 폭 빠진 다정한 도반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30,000원 (무료배송)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 고 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등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날개 3천원

